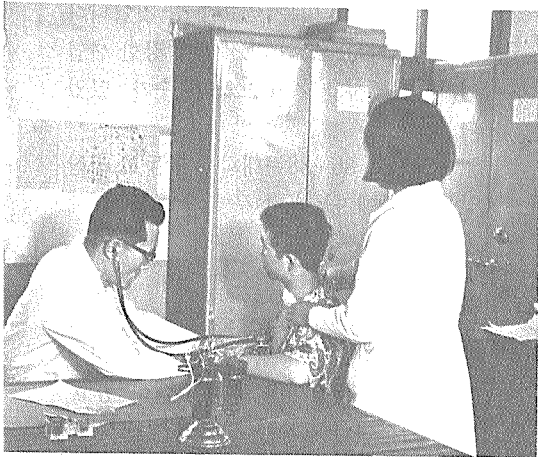


사랑의 인술봉사를 펴온 医人 朴錫濟 박사



▲1969년 1월 15일 상계동에서 무료진료반의 일원으로 진찰하고 있는 박석제 박사(사진 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저 역시 아무런 부담감 없이 행하여온 일인데 그런 것으로 상을 받아서 남들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13회 보건의 달 국민포장(사회분야) 유공자인 박석제 박사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몰래 꽃피운 미담들은 주위에 널리 번져가고 있음을 기자는 제세의원을 찾는 내원

●..... 각박한 사회 메마른 풍토에서도 한가닥 따뜻한 기쁨이 있기에 세상은 생각 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각박 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시내도봉구 수유동 제세의원(濟世) 원장 박석제(朴錫濟) 박사는 18여년간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아, 불우한 노인, 고아, 죄수 등 사회에서 버림 받은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의인술을 펴온 바 있다.

자를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처음에 의술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

『지난 1968년도에 이곳 수유리는 전부 미나리밭이었습니다. 그당시 정신박약아를 수용하고 있는 각심학원에 찾아가 보았더니 정신박약아들이 아파도 진찰을 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의술봉사를 실시하였으면 하고 생각

했지요. 그것이 동기라면 동기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우한 노인이나 고아들이 아파도 진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의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도 동기라면 동기랄 수 있지요.』

-그후론 어떤일을 하셨습니까? -

『의사가 없는 무의촌 마을에 집사람(최정희·54세)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무료검진반을 편성해서 진찰과 치료를 행하여온 일 뿐입니다.』

-그동안 의술봉사를 해오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

『몇년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추석전날 제가 진찰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 제가 진료하는 「한빛맹인학교」의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정상인이라면 10분정도의 거리를 그 아이는 앞을 못보아서 그런지 1시간정도를 혼자서 걸어 온것 같더군요. 현대 중요한 것은 그 꼬마학생의 손에 병아리를 한마리 꼬옥 안아들고 와서는 「추석날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푹고아서 몸보신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 학생의 얼굴과 행동, 말 등 모든것을 보고 듣고난 후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에 남는 일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여운이 남아 있는데 박석제 박사의 얼굴에서는 푸근한 감정이 도는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의술을 해오시면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글쎄요. 저는 인생관이라기 보다는

제가 의사가 된 동기와 의술활동을 하는데 신조를 말씀드리지요. 환자의 아픔은 의사의 아픔이고, 환자의 괴로움도 의사의 괴로움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은 해나갈 것입니다.』

인술은 결코 가난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병마와의 투병에서 빛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강한 신념이 비치는 것을 기자는 느낄 수가 있었다.

-끝으로 86·88큰대회를 앞두고 정상인들이 장애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장애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재활교육원과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병원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한 명절이나 특정한 날에만 찾아와서 위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자주 그들과 대화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요. 그리고 또하나 있다면 외국인들에게 동정을 받지않는 완벽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박석제 박사.

20여년간 남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의 인술봉사를 해온 박 박사의 자그마하고, 겸손하게 꾸며진 사무실을 나오면서 기자는 하늘을 쳐다봤다.

매일매일 자신의 일도 처리못하여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기자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수유리에 소재한 한빛맹아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다. 박석제 박사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한빛맹아학교는 자그마한 건물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기자는 그곳에서 박석제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학생으로부터 들을수가 있었다.

-학생 이름이 뭐지 -

『윤산옥이요』

-몇살-

『18살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지 학생은 얼굴을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박석제 선생님 알아요? -

『예, 아주 잘알아요?』

-어떻게 알지요 -

『박선생님 참 고마우신 분이예요. 제가 아파서 찾아가면 아버지처럼 잘 진찰해 주시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사주시고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운지 말을 못하는 학생을 보면서 기자는 더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잠시후 한빛맹인학교 교장선생님을 기자는 만날 수 있어 박석제 박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교장선생님(女·한경신·63세)은 이렇게 그를 말한다.

-교장선생님 박석제 박사님을 아십니까? -

『그럼요 아주 잘알아요. 저희 학교 학생, 교직원등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진찰해주시고 또한 자주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석제 박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요』

『박선생님은 저희들이 가면 돈을 내는 환자들보다도, 무료로 진찰하는 저희들을 먼저 진찰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학생들에게 먹을 것과 옷등을 사주시기도 합니다』라고 역시 옆에 있던 영영미 간호원(23세)이 말을 덧붙여 준다.

* * * *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 맹인학생을 보았다. 버스번호를 볼 수가 없어 30분동안을 서 있었다고 하였다.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는 그 맹인학생을 버스에 태워주고 담배 한개피를 물었다.

그리고 박석제 박사의 의술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까지 기자 역시 장애자들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나 부족함을 알았다.

醫人 朴錫濟 박사, 결코 평범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나 그 사람이 지난 18여년간 퍼온 사랑의 의술활동은 주위에 크게 먼저 못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오)

